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 성료

군산시, 시민·공무원 협업해 정책 디자인... 총 7건 우수 제안 선정·제안 정책 실현 '최선'

군산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협업으로 정책을 공동 기획 설계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7일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우수 제안 시민과 관계 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정책 T/F팀을 출범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는 군산시민 대상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 제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1건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 제안 중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27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

총 7건이다.

정책장터 토론회에서는 7건의 우수 제안을 한 시민들이 직접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와 관계 법령 및 예산 등의 검토를 통해 거쳐 제안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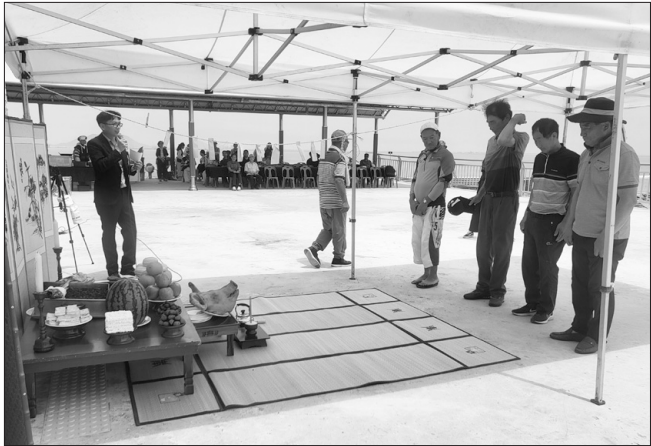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토론회 후에도 시민들과 공무원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실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고 기획한 제안은 8월에 있을 경진대

회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2명), 장려상 10만 원(4명)의 시상금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공무원은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제안이 정책화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주민들이 지난 27일 군산시·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출향인 을 초청해 개최한 주민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리도 마을회관 준공 기념 주민화합 행사

100여명 참석·성황리 개최... 어촌뉴딜사업 통해 숙원사업 해결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주민들이 지난 27일 군산시·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출향인 을 초청해 개최한 주민 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 바탕 신나는 풍물로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주민들과 손님들은 흥겨운 가락에 어깨춤을 추면서 흥을 돋웠고, 이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준공 고사가 진행됐다.

고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박병환 두리도 이장은 "평생 살아온 두리도 주민을 하나로 이어줄 마을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기쁘기 한이 없다."라면서 "두리도가 살맛 나는 섬이 되어가는 걸 두리도 출향인들과 초청객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줘 더욱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두리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한 유인도서로 현재 35세대 6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행정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안도의 부속 섬

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 회의나 교육이 있을 시 집에서 진행해왔고 섬을 둘러싼 방파제도 너무 짧아 태풍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풍이 불어올 때면 가력도항으로 피항하고 군산에 머무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타지로 떠나지 않고 고향인 두리도를 지켜왔다.

그러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방파제 연장 △경사식 물양장 △잔교 및 공동작업장 설치와 함께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 건립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올해 6월 마을회관 건축이 완료되었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 두리도는 새만금항 신항 조성부지와 일체화 되어 있어 향후 신항 활성화에 중요한 배후부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군산대, RISE 대학상생사업 추진 박차

RISE사업·글로벌30대학상생사업 선정... 약 87억원 사업비 확보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전북 글로벌대학30 대학 상생사업에 선정돼 약 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 확보에 따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새만금 특화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참여인재 및 산업연혁신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립군산대는 에너지, 해양·수산·식품, 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양웰니스 및 농생명바이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전북 서해권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융합형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및 김제 백구 산업단지와 연계한 수산식품 가공수출,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전기 특장차 분야 맞춤형 인재를 육성, 미래 먹거리로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전형 고등교육 거점으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창업·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RISE 사업(78.3억)을 통해 기업 수요 기반 MD/MCD를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현장 실습형 기업 연구 지원체계 구축, IDEA2IP-V 창업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동행 협력 지역 발전, 군산형 늘봄·유보통합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대학30 대학 상생 사업(8.6억)에서는 도내 청년-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탐방, 비글로벌대학 특성과 사업, 시군 현안 해결을 통해 기업 맞춤형 특성과 인재를 발굴해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 마련, 지역과 기업의 현안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 6명, 정례회 5분 발언 잇따라

유소년축구단 부흥 위한 코칭스태프 영입 등

군산시체육회 불합리한 운영 문제 제기도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생말공원 그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 점검과 관련, 조경사업 준공 전 교육·관목 등 전체 식재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 검증체계로 철저한 점검할 것과 고사 식재물 교체 이행 여부에 대해 중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유소년축구단의 부흥을 위해 우수한 코칭스태프의 영입, 체육정책 법령변화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과 관련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축구부 창단에 서두를 것, 유소년 축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와 후원회 설립 등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2024년 11월 준공한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입로 차선 확장 또는 입출구의 분리로



이연화 의원 김영란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원활한 차량교행 위한 공간 확보로 교통 혼잡 완화, 기존 주차 공간 차량 동선 및 구획 재조정을 통해 주차 가능 면수 증가 기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재차 필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서군산복합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체육회의 불합

리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사무국장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노동부의 조정을 통해 복귀했음에도 군산시체육회장이 임의적으로 근무를 배제하고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출은 군산시체육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에는 풋살장을 제외하고 8곳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 축구장이 관리미흡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자신이 직접 축구장 8곳을 확인해본 결과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인조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4곳이며 이중 수송과 군봉 축구장 2곳은 보수가 시급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부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즉시 착수와 현장 상황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할 것, 변경된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을 도시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것,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활용할 것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여름방학 체험 풍성

내달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 행사

내달 29일~8월 10일,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백제왕도 익산시가 특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백제날 놀자' 퀴즈쇼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형식으로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제공된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역사탐험대'와 '귀족휴가'가 진행된다. 역사탐험대는 현실판 보드게임 형식의 가족 참여형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백제 역사를 배경으로 역할을 부여받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귀족휴가는 백제 귀족의 여름을 주제로 한 문화 체험이다. 다도, 왕관 만들기, 석탑 만들기 등을 통해 백제시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역사탐험대와 귀족휴가에 참여 신청은 7월 14~20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36-527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호응'

상반기 총 409세대 신청

익산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이 주저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 접수 결과, 총 409세대가 신청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증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에 대한 꾸준한 호응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연중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약 7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신청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준비 서류를 7월부터 기존 10여 개에서 5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선정돼 감사패

익산시는 지난 2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생활 밀착형 보훈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 참전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수당 수준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참전수당 상향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2024년 2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는 참전수당을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도적 행정은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익산시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20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8명이 수료하고 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진로감을 회복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아울러 '취업워크숍'과 '청년도전 네트워킹 데이' 등 체험형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해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열린 '제2차 청년지원기관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지역 대학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창업 등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